

칼럼

당뇨병환자가 늘고 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가



閔 獻 基
서 울 醫 大
<내 과 교수>

糖尿病은 당뇨병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서 그체질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할 경우에 나타나는 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체질에 맞지 않는 生活을 糖尿病發症의 환경 요건이라고 하며, 過飲 過食, 운동부족 여기에 따르는 肥滿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시달림(스트레스) 등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당뇨병치료의 기본은 이체질에 맞지 않는 생활을 개선하는데 있는 것이다. 즉 당뇨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이나 주사(인슐린)로써 치료하는 수도 있으나 기본은 「生活療法」이며 철저한 생활療法 없이는 다른 치료법의 추가도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생활요법 즉 식이요법과 운동요법만 가지고도 반수 이상의 患者에서 당뇨병의 「컨트롤(Controll)」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컨트롤」이란 말은 일단 혈당도 정상화되고 병적상태가消失된 것을 말하는데 생활요법 즉 당뇨병체질에 맞는 養生을

- ◆···니 국민보건상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
- ◆···뇨병은 다른 병들과는 다른 특이한 양상을 나···◆
- ◆···타내는 만성병임으로 그 특징을 알아본다. ···◆

당뇨병은 우리나라에···◆
서 20~30년 전 까지···◆
만 해도 그리 흔한病···◆
은 아니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급증하여 현재···◆
인구의 약 2% 가령의···◆
환율을 나타내고 있으···◆

① 체중 관리
당뇨병체질이 아닌 사람에서 약간의 비만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당뇨병체질로서 당뇨병이 된 사람에서는 肥滿는 절대로 금물이며, 비만한 당뇨병환자에서는 체중감소만으로 병이 컨트롤되는 수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체중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一律적으로 할 수 없으나, 發育의 끝난 직후 즉 20대 초반의

종을 감소시키겠다는 것도 식사를 줄이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라고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心臟血管系에 심한 合併症을 가진 重症당뇨병환자, 感染에 걸려 있는 환자 등에서는 운동을 하면 안될 것이다.

가장 기본은 ③ 식사 요법

당뇨병의 식이요법이라고 하면, 무슨 특별한 식사를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그럴 것이 아니며『건강을 유지하는』는데 필요한 가장 올바른 식

한 생활療法、이요법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열량(칼로리)에 있어서 부족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게 되는 양의 식사이며, 각 영양소(한 합수탄소,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의 배합밸런스가 좋은 식이다. 성인의 경우 경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체중 1kg당 25~30칼로리(Kcal)

를 섭취하면 충분한 것인데, 대다수의 사람이 과다한 칼로리 섭취에 습관이 되어 있으므로 糖尿食은 너무 적어서 배고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당뇨병환자가 식이요법을 시작할 때는 공복감으로 고통을 맞지만 2~3개월 참고 실시하면 공복감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식이요법은 일생동안 계속되어야 하므로 환자의 식생활의 습관 기호에 따라 調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사, 영양사의 지도를 잘 받아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糖尿病治療의 기본이 되는 체중관리 運動療法 식이요법에 관해서 기술하였는데, 반수 이상의 초기 당뇨병환자는 이 기본요법만으로써 혈당 컨트롤 되고 合併症도 預防이 되겠지만, 경구 혈당하강제 인슐린주사를 필요로 하는 重症患者, 合併症이 이미 생긴 환자들은 專門醫의 지도와 치료를 더욱 철저히 받아야 한다는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다고 하겠다.

또한 운동을 많이 하여 체

성인들 당뇨병 관리

소홀히 하면, 바로 병적상태로 하기 쉽다는 것이다. 초기에 있어 병의 輕重은 血糖의 數值 것이다. 당뇨병환자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醫師 看護員, 膳養士의 도움을 받아가며 일생동안 단속하여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 본다면 당뇨병의 치료는 환자 자신이 일생

체중이 표준체중으로 참고가 된다고 하겠다.

② 운동 요법

적당한 운동은 당뇨병치료상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체조, 산보, 살립살이, 기타 스포츠등 무엇이든지 좋으며 전신을 움

시기 놓쳐 管理소홀히 하면 高血壓 등 계속되어

5~10년 지나면 건강을 수 없는 合併症 걸려 위험

비만은 절대 禁物, 항상 体重조절을

에 걸쳐 실시해야 된다는 점에서 본인이 醫師 노릇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당뇨병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다. 糖尿病에 있어서는 교육이 바로 치료의 일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현재 서울大學病院 종암의료원을 위시하여 여러 종합병원에서 환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환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조할 점은 糖尿病은 그 초기에는 검사상 혈당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여 진단이 내려지지만, 자각적으로 별로 피로 운동에 없으므로 醫師의 지시에 따라 섭생하는 것을 소홀히

직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주말 등산, 주말골프 등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매일 실시하는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므로 좀 더 먹어도 좋을 것이다」고 자기판단을 하는 수가 있는데, 상당한 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으로 사용되는 熱量(에너지)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큰 것이 아니며, 보통의 운동의 경우 그 것 때문에 食事療法의 내용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하겠다. 즉 많이 운동을 하니 많이 먹어도 좋다는 것은 당뇨병 치료에서는 語不成說이라고 하겠다.

또한 운동을 많이 하여 체

Belgium UCB 뇌대사 부활제

neotropil



제조판매처
화사한 유약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안동 159-2
전화: 02-520-1234
UCB SA pharmaceutical division
N.V. BRUSSELS BELGIUM

Outstandingly Unique !!

피로·권태감·기억력감퇴·의욕감퇴·두통 등의 자각증상을 나타내는 뇌순환부전·뇌동맥경화증은 등은 중년기 성인병의 불길한 예후입니다.

뇌순환부전증의 병인

40대 이후 겹쳐져 있는 뇌신경세포의 기능 저하로 인하여 포도당이 이용되지 못하여 뇌신경세포가 평창됨으로서, 인접 뇌세포 세포막을 압박하여 대뇌혈류량을 감소시키므로 본증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독특한 약리 작용

뉴트로필은 혈관관문을 통과하여 뇌신경세포 레벨에 직접 작용하여, 뇌신경세포의 물질대사를 촉진시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ATP생합성을 촉진시켜 세포평창으로 인한 국소인혈을 해소시켜줍니다. 또한 ATP생합성으로 발생한 CO₂는 모세혈관을 통해 정맥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호흡촉진인자로 작용하여 뇌세포의 산소진화력을 촉진시키므로 뇌동맥경화증·뇌순환부전증·뇌혈관사고의 가장 이상적인 치료제입니다.

혈관확장제의 단점

- 혈관확장제는 평활근이 완작용에 의하여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데 뇌혈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세혈관에는 평활근이 없으므로 뇌혈관을 확장시키기 어렵습니다.
- C. V. A. 환자 같이 뇌혈관이 파손된 환자에게 투여시 증세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작용증

- 뇌혈관사고 및 뇌순환부전
- 뇌출증(증증·반신불수) 및 뇌동맥경화증
- 두부외상 및 후유증
- 약물중독
- 일산화탄소 중독 및 후유증

포장

60, 100 캡슐,

각 캡슐 200 원

약물과 남용물자 좋은 약도 효능없다. 총력안보!